

# 증시 호황에 증권사 4곳 '1조 클럽'... 중소형사도 '약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삼성증권 117%, 한국투자 121% 등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전년 대비 급증  
기움 등도 4분기 실적 따라 1조 클럽 유안타 영업익 226%, 교보 76% ↑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의 '1조 클럽'에 가입한 국내 증권사가 4곳으로 집계됐다.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이익 증가에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면서다. 전문가들은 증권업종에 대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3분기 만에 국내 증권사 4곳 '1조 클럽'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4곳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겼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2506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2.5% 증가했다. 지난해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클럽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3분기 만에 1조원을 넘긴 것.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증권업황의 피크아웃 우려가 일부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다

변화된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실적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증권 1조1183억원, 한국투자증권 1조637억원, NH투자증권 1조6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6.94%, 121.1%, 50.6%씩 급증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1조 클럽 가입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곳도 있다.

기움증권은 누적 영업이익이 9608억원을 기록해 올해 1조 클럽 가입이 유력해진 상태다. 이어 대신증권(8184억원), 메리츠증권(7657억원), KB증권(7295억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 ◆증권업종 "이익 감소 불가피...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주목"

중소형 증권사들의 약진도 돋보였다.

유안타증권과 교보증권은 각각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2588억원, 13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26%, 76%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교보증권은 지난해 순이익(1040억원)을 뛰어넘어 3분기 만에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

KT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누적 영업이익이 1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KTB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9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급증했다. 한양증권은 968억원으로 85% 성장했다.

한편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브로커리지 이익 둔화가 확실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증권업종의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상승 여파로 2022년 순이익은 202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관련 우려는 이미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며 "게다가 증권업계의 기본적인 이익 체력도 이전보다 크게 향상된 만큼 감익 여부보다는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12억 아파트 대체 '주거용 오피스텔' 뜬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2억대 6억 아파트 4년만에 70%이상 줄어

규제 덜 받고 효율적 투자 '오피스텔' 9월 전국 매매가·매매건수 급상승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험하지 못한 주택시장이 열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대체 주거상품으로 부상한 오피스텔도 가격·거래량·청약경쟁률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 도심 역세권에는 오피스텔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초읽기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10억4299만 원)과 비교해 약 1억7340만원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권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4억4865만원으로 2억667만원, 강북권 14개 구는 9억7025만원으로 1억5365만원이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노릴 만한 6억원 이하 아파트 물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거래물량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들어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아파트 3만6947건 중 6억원 이하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1만250건(27.7%)이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4.5%에 달했다. 4년 만에 6억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채 중 3채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 ◆대체 주거상품으로 주목받는 오피스텔

최근 아파트의 대체 주거상품인 오피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 조감도. /신영건설

스텔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2030세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중심의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체 주거상품이자 아파트보다 각종 규제를 덜 받는 효율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특징까지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최근 오피스텔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0.43%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4월까지만 해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0.08%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분위기가 바뀌어 5월에 0.11%로 상승폭을 키운 뒤 6월과 7월(각 0.18%)을 거쳐 8월에 경중 뛰었고, 9월에 상승폭을 더 키웠다.

매매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9월24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건수는 2만8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청약시장도 활황이다. 부동산 리서

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원 청약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올 9월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2만1594실 모집에 26만3969명이 접수해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현행 85㎡에서 12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해졌다.

아파트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취득세·양도세 산정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울 도심 초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붐물

오피스텔이 인기를 누리면서 서울에서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실수요자와 여윌돈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대부분 초역세권이거나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에 위치해 임대수요가 두텁다.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 규제를 피하고 있어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모두 챙길 수도 있다.

국내 대표 부동산개발업체인 신영의 자회사인 신영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3-1 외 2필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답십리역 지웰에스테이트'를 이달 중 선보인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 동 규모에 지상3층~지상 20층을 오피스텔로 꾸며 ▲59㎡A(이하 전용면적) 72실 ▲59㎡B 72실 등 총 144실이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4번 출구에서 50m 거리인 초역세권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팔고 엔비디아 샀다

KRX, 이달 개인투자자 동향

최근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팔고 있는 반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93억원과 4039억원을 순매도했다.

올 상반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전망 속에 9만원대로 올라섰던 삼성전자 주가는 7만원을 조금 웃돌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매도 우위가 이어질 경우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순매도를 기록하게 된다.

반면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엔비디아 순매수 규모는 1억7546만달러(약 2070억원)에 달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7597억달러(약 896조원)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다.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주를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

아, TSMC 등의 급등세에 힘입어 연초 대비 34% 올랐다.

동학개미의 삼성전자 매도 배경은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반도체 업종의 흐름과 달리 국내 반도체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며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메타버스 관련주가운데 유독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 업종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메타버스를 전송하기 위한 5G,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그래픽 기술력에 따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속도가 결정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주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1180원 밑으로 내려가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다"며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의류, 유통, 필수소비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KB증권, 테마형 랩어카운트 2종 출시

KB증권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테마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서비스인 'KB 분사맞춤형-블록체인 이코노미 랩' 및 'KB 분사맞춤형-이음 바이오 랩' 2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전통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가 기대되는 블록체인 산업과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KB 분사맞춤형-블록체인 이코노미 랩'은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이다.

지난 5년간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폭발적 성장세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유지관리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한다. /박미경 기자